

## 남 북 협 력 동 향

(2009. 6. 23 ~ 9. 21)

### ■ 남북한 경제성장률, 환란 후 첫 역전(6. 28, 한국은행)

- 2008년 남북한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된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은행은 28일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2008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7% 성장하여 2006년(-1.1%)와 2007년(-2.3%)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함
- \* 2008년 남한의 GDP 성장률은 2.2%임
- 한국은행은 북한의 2008년 경제 성장이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인한 곡물 생산 증가, 6자 회담 이후 중유 및 원자재 지원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며, 북한의 성장 동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힘
- 북한의 경제규모(명목 GNI)는 남한의 약 1/38, 1인당 국민소득(GNI)은 약 1/18 수준으로 전년(약 1/39 및 1/19)에 비해 남·북한 격차가 소폭 축소됨

### ■ 대북제재, 압박하는 미국과 대답 없는 중국(6. 29, 연합뉴스)

- 최근 미국은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5자 협의를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범정부 특별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의 수장인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대사를 다음달 초 베이징에 보내 중국과 대북제재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4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결의안 실행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현재까지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음
- 청용화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한 강연에서 “대북 제재가 안보리 행동의 목표는 아니다. 정치적, 외교적 수단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하며 실행 가능한 수단”이라고 밝힘
- 또한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5일 “국제사회의 조치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 무역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앞선 23일 5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 북한, 단거리미사일 잇따라 발사(7. 4, 연합뉴스)

- 북한은 2일 오후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하고, 이틀 만인 4일 스커드급 미사일 5발을 잇따라 발사함
- 북한은 2일 최대사거리 120~160km의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인 4일 다시 사거리 400~500km의 스커드급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함
- \* 지대지 미사일인 스커드 또는 노동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함
- 군 당국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로 미루어 스커드급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이 스커드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 5일 이후 3년만임.
-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km~500km의 스커드 B, C 미사일,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 사거리 3,000km의 중거리 미사일을 작전 배치해놓고 있음

## ■ 통계청, 6일부터 북한통계포털 서비스(7. 5, 통계청)

- 통계청은 ‘북한통계포털’을 구축, 6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 이 포털은 북한의 주요 통계 13개 부문 96개 연·월간 자료와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53개 연간(부정기 포함) 자료를 담은 것으로 북한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76개 국내기관과 33개 국외 사이트도 연결하고 있음

## ■ 북한, 휴대전화용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7. 7, 연합뉴스)

-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려명’이 “손전화(휴대전화)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 북한 언론매체들의 보도나 체제 선전용 영상 등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7일 확인됨
- ‘려명’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문은 “세계 어디서든 휴대전화를 통해 이곳에 접속,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의 주요 기사와 사회주의 조선의 참모습, 조국통일 주제의 생동한 화보, 화첩들을 볼 수 있다”고 밝힘

## ■ CIA, 김정일 5년내 사망 가능성 71%(7. 11, 조선일보)

-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29%에 불과하다고 최근 우리 정보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함
- 정부 소식통은 10일 “미 CIA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정밀분석한 자료를 지난달 우리 정보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CIA는 김 위원장의 뇌졸중과 당뇨병의 후유증 등으로 5년 내 사망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고 전함
- CIA의 이같은 추정치는 김 위원장의 나이, 질병, 신체조건 및 뇌졸중을 맞을 시기와 그 이후의 신체 조건 변화 등을 의료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해 얻은 것으로 알려짐

## ■ 북한 김영남, ‘6자 회담 영원히 끝났다’(7. 16, 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5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군축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말함
- 김영남 위원장은 이집트에서 15일 개막된 제 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적대적 행동들로 상황을 심각한 대치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고 협상도 없다. 6자회담은 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 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밝힘
-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핵 역지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
- 한편 중국은 이와 같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에도 “6자회담은 계속 추진 되어야한다”고 강조함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영남 위원장 발언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 6자회담을 추진하고 한단계 더 진전시키기 바란다”고 밝힘

## ■ UN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대상 확정(7. 17,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북한 제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2일 채택한 결의 1874호에 따라 북한 정부 인사 5명과 5개 기업, 미사일 제조 소재 2개 물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함
- 안보리는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에 북한 정부 인사들을 포함하였으며,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에 깊이 관련된 북한 정부 인사 5명에 대해 여행 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확정함

- 대북 제재 대상 기업은 지난 4월 단천 상업은행 등 3곳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 조치에 이어 금번 5개 기업의 추가 선정으로 모두 8개가 됨
- 안보리 제재 위원회는 제재 대상 물자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7월 16일, 안보리 추가 제재 대상 리스트 >

◇ 개인

- ▶ 리제선 : 원자력총국 국장
- ▶ 윤호진 : 남천강무역회사의 책임자
- ▶ 황석하 : 원자력총국 핵프로그램 책임국장
- ▶ 리홍섭 : 전 영변핵연구소 소장
- ▶ Han Yu-ro(한글표기 불분명) : 련각산수출조합(조선련봉총회사) 책임자

◇ 기업

- ▶ 남천강무역회사 : 북한 원자력총국 산하 무역회사, 핵 프로그램 관련
- ▶ Hong Kong Electronics (이란 소재) : 핵 확산 관련 자금 거래
- ▶ 조선혁신무역회사 : 대량살상무기(WMD) 연루
- ▶ 조선원자력총국 : 북한 핵프로그램 주관
- ▶ 조선단군무역회사 : 북한 제2과학원 산하기관으로서 대량살상무기(WMD) 연루

◇ 물자

- ▶ 방전가공용 탄소화합물 : 미사일 노즐 제조 등에 사용
- ▶ 파라-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 : 미사일 및 원심분리기 회전자 제조 등에 사용

<4월 24일, 안보리 제재 대상 선정 기업>

-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 미사일 수출, 무기부품 수입
- ▶ 조선련봉총회사 : 미사일 수출, 무기부품 수입
- ▶ 단천상업은행 : 무기거래대금 결제

## ■ 올 상반기 남북교역 작년의 73%에 그쳐(7. 21, 관세청)

-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6월 남북교역 규모는 649.8백만달러로 전년 동기(884.8백만달러)의 73.4%에 그침

2009년 상반기 남북 반출입 실적

단위: 천미불

반출		반입		교역수지(A-B)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264,396	18,255	385,454	16,642	△121,058

## ■ 평양에 패스트푸드점 첫 등장(7. 25, 연합뉴스)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의 평양 금성네거리에 지난달 초 ‘속성음식 센터’(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문을 열었다고 25일 전함
- 조선신보는 이 가게의 ‘협조대상’이 ‘위홀(와플) 판매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기업’이라고 밝히면서도 “싱가포르측은 설비만 제공하고 노력과 음식의 원자재는 모두 조선(북)측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식 패스트푸드점인 것을 강조함

## ■ 북한, 미국에 직접 대화 타진(7. 26,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24일 뉴욕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복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도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어떤 협상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보유 중인 무력카드를 사실상 모두 사용한 만큼 이제 협상 쪽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6일 NBC 방송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희망하지만, 협상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국제적인 압력에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돼 있다고 지적함

### ■ 남북, 거래말큰사전 본격 집필 합의(7. 26, 연합뉴스)

-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25일 남북한 언어학자가 공동 집필하는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18차 회의가 지난달 열려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했다고 전함
- 남북 공동편찬위는 2012년까지 집필을 끝내고 2013년에 약 30만 어휘의 사전을 펴낼 계획임

### ■ 중국, 대북 군사물자 무역 통제 강화(7. 29, 연합뉴스)

- 중국 랴오닝성 단둥 세관은 지난 24일 북한으로 수출하는 제품 수송 차량에 대한 검색 과정에서 과일 상자로 위장한 6박스의 바나듐(70kg)을 적발해 전량 압수하는 등 중국의 대북 군사물자 무역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 \* 바나듐은 미사일 부품이나 비행기 제조 등의 필수 원료임
- 대북 무역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단둥 세관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전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지난 6월에는 북한에서 반입되던 수십톤의 광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반송시킨 바 있음

### ■ 남한 어선 '800 연안호' 북한에 예인(7. 31, 연합뉴스, 통일부)

- 29톤급 오징어 채낚이 어선 '800 연안호'가 30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7마일 가량 넘어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으로 예인됨
- 우리 정부는 30일부터 여러차례 "우리측 어선 연안호의 북방한계선 월선은 항로착오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히 선박과 선원을 송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힘
- 북한은 31일 동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800 연안호'에 대해 "현재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선원과 선박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밝힘

\*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 등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는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등이 있으며, 두 어선은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각각 3일, 18일 만에 돌아옴

## ■ 민간단체 방북 승인(8. 1, 서울신문)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대북지원단체인 월드비전 박장빈 부회장 등 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힘
-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68일 만에 처음으로 민간 단체의 북한 방문을 승인한 것으로,
- 민간단체들은 1일부터 8일까지 평양 농업과학원, 양강도 대흥단군, 평남 중화군을 방문해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 전수 및 향후 사업계획 협의 등을 할 예정임

## ■ 대북 사업 기금지원 의결(8. 3, 통일부)

- 정부는 8월3일 제2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2009년도 민간단체 개별사업 중 취약계층 및 영유아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였음
-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중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영유아·산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1차적으로 기금지원(총 35억 7,300만원)을 결정하였음.
- 기금지원 대상 10개 민간단체들은 지원 결정 취지와 ‘남북협력기금 집행기준’에 맞추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통일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

## ■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여기자 석방(8. 5, 연합뉴스)

-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을 위해 8월 4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으며, 김 위원장은 여기자 2명을 특사로 석방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현안문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전하면서,



- “클린턴은 김 위원장이 특사를 실시한 것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하였다”고 보도함
- 반면 백악관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클린턴의 방북은 “오로지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밝히며, “구두 메시지 전달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함
- 미국은 7월 중순 두 여기자들이 가족과의 전화 통화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면 자신들을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북한 측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여기자들이 속한 커런트 TV의 공동설립자인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북측 요구사항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힘
- 미 당국은 방북의 성격이 인도주의적 성격에 국한된 것임을 6자 회담 당사국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짐

## ■ 미국, 여기자 석방과 핵 문제는 별개(8. 5,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5일 북한이 억류 여기자 2명을 석방한 것과 핵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
- 클린턴 국무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들이 불법 입국하여 반공화적 적대행위를 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 “여기자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완전히 별개의 이슈로 생각해 왔다”고 밝힘
-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5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은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자 석방 조치가 북미 양자 협상의 시작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빌 클린턴의 방북이 인도적 임무임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함

## ■ 미국, 북한 광선은행 제재대상 추가 지정(8. 12,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는 11일 북한 조선광선은행(KKBC)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힘
- 미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달 16일 결의 1874호에 따라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5개 회사를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으로 금융제재 대상기업을 추가 선정함
- 조선광선은행은 미국에 의해 WMD 확산 관련 금융제재 대상 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에 대한 금융거래를 지원해온 혐의를 받고 있음

## ■ 유성진씨 억류 136일만에 귀환(8. 13, 연합뉴스)

- 현정은 회장이 방북길에 오른 뒤 나흘째인 13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136일만에 풀려나 오후 8시 45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함
- 현대아산 개성사업소에서 일하던 유씨는 지난 3월 30일 체제 비난과 여종업원에 대한 탈북 책동 등의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후, 개성공단에 있는 한 여관에서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짐

## ■ 현대아산, 이산가족상봉 등 5개 교류사업 합의(8. 17, 연합뉴스)

-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양건)는 17일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 시작, 올해 추석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함
  - 보도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을 면담하면서 현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었다”며, 다음과 같이 밝힘
1.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며,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에 대한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함.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을 철저히 보장될 것.

2.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 선언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함.
3.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는 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4. 현대는 백두산 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관광을 시작하기로 함
5. 올해 추석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함

#### ■ 대한적십자사, 남북 적십자회담 제의(8. 20, 조선일보)

- 대한적십자사는 20일 북한의 조선적십자사에 ‘추석(10.3)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회담을 제의했음
-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오후 유종하 총재 명의로 조선적십자사 장재언 위원장에게 “제 17차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위한 남북적십자사 회담을 26~28일 금강산에서 갖자”는 통지문을 전달함
- 그러나 오늘(24일) 오전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26일 회담이 개최될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

#### ■ 북한, 개성공단 통행제한조치 철회(8. 21, 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우리측 군사실무책임자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어 지난해 12. 1일부터 실시해 온 육로통행 제한조치(“12.1 조치”)를 '09. 8.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함

## &lt; 세부 내용 &gt;

- 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및 모든 입주기업 체류 정상화
  - 종전 상시 체류인원 제한(880명) 조치 철회
- ② 남측 기업, 민간단체 육로통행 제한조치 철회
  - 방북회수 : 매일 방북 3회, 귀환 3회→ 방북 12회, 귀환 7회
  - 통과인원 및 차량 : 매회 250명, 150대→ 500명, 200대
- ③ 경의선 철도(판문역-과주역) 화물열차 운행 재개
- ④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 재개
  - \* 남북경협을 논의하는 당국간 상시적 협의기관으로서 정부 및 당행 등의 민간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 김양건, “남북간 직접교역하면 상호이익”(8. 22, 연합뉴스)

-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22일 “남북간 직접 교역을 하면 상호이익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당국 대화도 하고 경제, 사회, 문화 교류도 하고 의원 교류도 하자”고 밝힘
- 북한 조문단으로 서울을 방문중인 김 부장은 이 날 남측 인사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에 자원이 많은데 이것이 중국을 거쳐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는 “이명박 대통령도 개성공단을 세계적인 일류 공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데 생각이 같다”고 답함
- 간담회에는 남측 인사로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등 전직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이, 북측 인사로는 김 비서와 김 부장이 각각 참석함

## ■ 북한 조문단, 이 대통령 면담(8. 24, 연합뉴스)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김기남 비서 등 북한 조문단 일행을 접견했다”면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발표함

\* 구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앞서 2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과의 회동에서 북측은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음
- 이 대통령은 북한과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함
-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청와대 예방 후 기자들에게 “다 잘 됐다.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 9월 26일~10월 1일 이산가족 상봉 합의(8. 28, 연합뉴스)

- 남북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함

### <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합의서 내용 >

- ① 상봉 규모는 남, 북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함
- ② 생사확인외뢰서는 9월 1일 각각 200명씩, 회보서는 9월 15일, 최종명단은 9월 17일에 100명씩 교환함
- ③ 상봉 장소는 단체상봉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 등 기존 시설에서 하기로 함
- ④ 선발대 사업은 상봉시작 5일 전부터 진행함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번 합의를 통해 2007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으며, 합의서에는 남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북측 단장인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서명함
-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식”과 추가 상봉 문제를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북측이 이번 회담은 “추석 상봉에 국한”된 것이라며 거부함에 따라 이들 문제는 합의서에서 제외됨
- 그러나 합의서에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지속적인 남북 협의의 여지를 남김

## ■ 연안호, 30일 만에 귀환(8. 29, 연합뉴스)

-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800 연안호’ 선원 4명과 선박이 나포 30일 만인 29일 무사 귀환함
- \* 29톤급 오징어 채낚이 어선인 연안호는 7월 30일 GPS(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NLL을 13km 넘어감
- 속초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께 강원 고성군 제진 동북쪽 약 29km 지점 NLL 상에서 북측으로부터 연안호를 인수함

## ■ 북한 선박 UAE 억류, 유엔 결의후 첫 제재(8. 29, 연합뉴스)

-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가던 호주 화물선을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당국이 적발해 압류, 조사 중임
-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이래 북한 불법 무기 수출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UAE는 불법 무기를 선적한 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해 불법 무기를 확인하고 이를 안보리에 통보함으로써 결의 1874호에서 규정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짐

## ■ 9월 1일부터 개성통행 日 6회→23회 확대(8. 31, 연합뉴스)

-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조치’를 8월 21일 자로 해제 한 것과 관련하여, 9월 1일부터 경의선 육로통행 횟수가 현행 하루 6회에서 23회로 확대됨
  - 방북회수 : 日 6회(방북 3회, 귀환 3회) → 23회(방북 12회, 귀환 11회)
  - \* 12.1조치 시행 전: 19회(방북 12회, 귀환 7회)
- 이와 함께 현재 각각 250명과 150대로 한정되었던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 및 880명으로 제한되었던 개성공단 상시체류자격 소지자 수도 전면적으로 풀릴 예정임

## ■ 북한,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무기화 마무리단계 (9. 4, 연합뉴스)

-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가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북한은 편지에서 “우리는 결의 1874호를 전면 배격한다고 성명한 바 있으며,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관련 위원회의 해당 요청\*에 응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힘
  - \* 유엔 제재위원회는 대 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아랍에미리트에 압류된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함
- 북한은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준비되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다”고 밝힘

## ■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오늘부터 재가동(9. 7, 연합뉴스)

- 지난해 ‘12.1조치’로 9개월여간 폐쇄됐던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이하 경협사무소)가 7일 재가동 됨
- 경협사무소에서 근무할 정부 당국자와 민간기구 인사 등 우리측 인원 13명 중 9명은 7일 오전 9시께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향했으며, 유종렬 소장을 포함한 3명은 7일 오후 방북하며, 나머지 한 명은 서울에 남아 개성 현지와의 업무 연락을 담당하게 됨
- 경협사무소에는 남측 인원 이외에 량기건 소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 6명이 함께 근무하게 될 예정임

## ■ 미국, 북한과 양자 대화 임박(9. 12, 매일경제)

- 미 국무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미 대화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 긍정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 “북미 대화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2~3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9월 21~25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중국 건국 60주년 기념국경일(10월 1일),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일(10월 6일) 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한달이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 ■ 북한,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임금 5% 인상 제안(9. 12, 조선일보)

-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예년과 같은 수준인 5%로 하자는 합의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힘
- 이 부대변인은 “북측 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기준 월 임금은 현재의 55.12달러에서 57.88달러로 올라가게 된다”며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 1일(소급적용 예정)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을 월 300달러로 올려달라는 요구와 토지임대료 5억 달러를 더 내라는 요구 등을 접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함
- 북측이 ‘임금 5%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 “그럼 300달러 인상안은 철회한 것이냐”고 물었으나, 북측은 “일단 5% 인상으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으며,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등 그 동안 문제 삼았던 사항들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함

### ■ 원자바오 총리, 다음달 4일 방북(9. 14, YTN)

- 북한과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다음달 6일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양국 ‘친선의 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하는데 합의함
- 이번 방북을 통해 원자바오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4월과 5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하면서 악화됐던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됨

### ■ 정부, 사회문화교류사업 관련 방북 승인(9. 14, YTN)

-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사업과 관련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함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준공식과 총장 임명식에 참가하기 위해 15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하는 박선희 동북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20명에 대해 오늘 방북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힘

### ■ 북한, “개성공단 애로사항 점검” 통지(9. 16, YTN)

- 북한 개성공단 관리감독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자체 실사단을 구성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겠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남북은 16일 북측이 제안한 대로 개성공단 임금 5% 인상에 합의하였지만, 임금 이외에 북한이 요구했던 다른 사항들은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북한의 실사가 향후 협상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음

### ■ 김정일 위원장, “양자 및 다자 회담 참여”(9. 18, YTN)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8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문한 중국 다이빙 귀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힘

### ■ 미 의회조사국, 대북 6대 인센티브 분석(9. 18, 매일경제)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대북 경제적 인센티브로 ① 북·미 수교, ② 무역협정 체결, ③ 대북 제재 완화, ④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⑤ 에너지와 식량 지원, ⑥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등 크게 6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보고서는 북·미 수교가 당장 힘들 경우 외교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대표부를 두고 있는 쿠바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이나 ADB에 북한의 경제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를 설립할 수도 있고, 이 펀드에 한국과 일본의 자금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 오바마, “김정일 꽤 건강, 통치력 건재”(9. 20,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CNN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임을 밝히면서, “한 때 김 위원장이 권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지만, 지금 김 위원장은 다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고 말함

-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면담했으며 귀국 후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음

## ■ WFP, 정부에 대북지원 동참 요청(9. 20, 연합뉴스)

-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영유아 및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750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공식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짐
- 앞서 16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증진 세미나' 축사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음

## ■ 통일한국 경제, 30~40년내 독일·일본 추월(9. 21, 이데일리)

-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성장 잠재성이 실현된다면 통합된 한국의 GDP는 달러화 기준으로 30~40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을 뛰어넘고 일본까지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골드만삭스는 "현재 북한 경제는 성장 정체와 계획경제의 붕괴라는 기로에 서 있지만 잘 교육받은 다량의 노동력과 2008년 기준으로 북한 GDP의 1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광물자원, 생산성의 대폭적 향상 여지 등 북한의 미개발된 잠재성 또한 크다"고 평가하면서,
- 내년 남북한을 합친 달러기준 GDP 규모는 9,430억 달러 수준인데,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15년에는 1조 6,430억 달러로 늘어나고, 2030년에 3조 2,800억 달러, 2040년에는 6조 5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